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일 반 회 계
□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 정 보 통 신 진 흥 기 금

2026. 4.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전 문 위 원 강 대 훈

목 차

Ⅰ. 개요 ····· 1

1. (정부 전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1

가.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 1

나. 추경안 규모 ·····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3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회계 및 기금별 규모 ····· 3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주요 내용 ····· 5

Ⅱ. 검토의견 ····· 10

1. 사업별 검토 ····· 10

가. 일반회계 ····· 10

1)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2033-371):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 필요 등 ····· 10

2)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2231-405): 사업계획 보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6

1) 연구개발특구육성(R&D)(4632-401): 유사 사업 간 기능 재조정 및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36

다. 정보통신진흥기금 ····· 44

1) AI통합바우처(2602-336):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지원 기준 설계 필요 등 ····· 44

Ⅰ. 개요

1. (정부 전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가.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에너지 수급·해운 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여 편성되었음. 또한 경제·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어 이를 편성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에너지 복지 등을 포함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사업이 포함되었음. 또한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 등 내용으로 포함하고, 산업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CCU 메가프로젝트 추진 사업 등과 지방재정 보강 등을 위한 교부세 증액 11.4조원을 포함하여 약 26.2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음.

○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비롯된 민생·산업 위기를 최소화하고,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나. 추경안 규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10.1조원, 민생 안정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조원을 포함하여 26.2조원이 편성되었음.

○ 추경안의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약 25조원 규모이며,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1,154억원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증액 편성되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의 회계 및 기금별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총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전체 본예산 15조 487억 1,700만원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15조 68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지출은 전체 본예산 30조 1,540억 2,300만원 대비 1,15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조 2,69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추경 대상 사업 기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당초 본예산 1조 1,207억 2,000만원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1조 1,40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추경 대상 사업 기준 지출은 일반회계는 당초 본예산 15조 4,390억 3,000만원 대비 642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조 5,54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회계는 당초 1조 3,141억 5,900만원 대비 87억원이 증액된 1조 3,22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당초 1조 1,207억 2,000만원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1조 1,40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후

대응기금은 당초 1,677억 1,400만원 대비 224억 500만원이 증액된 1,90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총계 기준)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당초)	추경 (변경)	본예산 (당초) (A)	추경안 (변경안) (B)		
총수입(전체)	15,089,308	15,187,601	15,048,717	15,068,717	20,000	0.1
수입(추경대상)	1,001,043	1,089,336	1,120,720	1,140,720	20,000	1.8
-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43	1,089,336	1,120,720	1,140,720	20,000	1.8
총지출(전체)	25,237,355	27,323,663	30,154,023	30,269,396	115,373	0.4
지출(추경대상)	10,597,722	12,674,030	15,439,030	15,554,403	115,373	0.7
- 일반회계	8,593,081	10,557,136	12,836,437	12,900,705	64,268	0.5
- 지역균형발전회계	920,355	944,315	1,314,159	1,322,859	8,700	0.7
-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43	1,089,336	1,120,720	1,140,720	20,000	1.8
- 기후대응기금	83,243	83,243	167,714	190,119	22,405	13.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4.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증액규모는 총지출 기준 1,153억 7,300만원임.

○ 일반회계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4대 과기원*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이 637억 6,800만원 규모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으며,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이 5억원 규모로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이 87억원 규모로 증액되었음

*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AI통합바우처 사업이 200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후대응기금에서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이 22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총지출 기준)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 (당초)	추경 (변경)	본예산 (당초) (A)	추경안 (변경안) (B)		
지출(추경대상)	615,708	655,708	965,104	1,080,477	115,373	12.0
[일반회계]	556,680	539,604	687,986	752,254	64,268	9.3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5,757	5,757	27,643	28,143	500	1.8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18,356	233,356	297,077	311,375	14,298	4.8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R&D)	97,697	101,447	116,367	132,857	16,490	14.2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0,160	97,660	126,289	142,779	16,490	13.1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634	101,384	120,610	137,100	16,490	1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6,104	116,104	167,343	176,043	8,700	5.2
- 연구개발특구육성	106,104	116,104	167,343	176,043	8,700	5.2
[정보통신진흥기금]	-	-	89,775	109,775	20,000	22.3
- AI통합바우처	-	-	89,775	109,775	20,000	22.3
[기후대응기금]	-	-	20,000	42,405	22,405	112.0
- CCU메가프로젝트(R&D)	-	-	20,000	42,405	22,405	11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4.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4대 과기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7,241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37억 6,800만원 증액(9.7%) 편성되었음.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도권 AI 선도 지구 발굴 용역’은 수도권 AI 인프라 역량(반도체 클러스터, 연구중심 대학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강점을 극대화하는 ‘AI선도지구’ 발굴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5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과기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 지원(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1,219억 8,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억 9,800만원을 증액(13.3%) 편성되었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과기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 지원(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610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억 9,000만원을 증액(37%) 편성되었음.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과기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 지원(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626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억 9,000만원을 증액(35.7%) 편성되었음.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과기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 지원(창업리그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544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억 9,000만원을 증액(43.4%) 편성되었음.

-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는 국가안보와 경제 주도권 확보의 핵심인 딥테크 관련 기술적·경제적 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투자·연구·사업화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출연연·지역 거점대 등의 딥테크 연구성과 발굴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843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억원을 증액(11.5%) 편성되었음.

- ‘AI통합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인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는 전통 제조업 등 분야의 기업이 AI 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여 창업기업과 전통 기업의 동반성장 및 국내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200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은 CO_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_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되는 산업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은 424억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4억 500만원을 증액(112%) 편성되었음.

Ⅱ. 검토의견

1. 사업별 검토

가. 일반회계

1)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2033-371):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취지의 유사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동 내역사업을 기존의 AI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포함하거나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이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집행 가능성, 긴급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은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이행 지원과 산업 생태계 마련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통하여 사업출연금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276억 4,3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억원이 증액된 28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2026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5,757	5,757	27,643	900	28,143	500	1.8
○AI·디지털 사회 기반 구축	827	827	2,100	0	2,100	0	0
○AI·디지털 규범 글로벌 확산	630	630	472	0	472	0	0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4,300	4,300	10,100	120	10,100	0	0
○AI 신뢰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2,024		2,096	280	2,096	0	0
○AI선도국 도약 정책지원	0	0	1,175	0	1,175	0	0
○AI 특화지구 조성(AHAP)	0	0	10,500	500	10,500	0	0
○AI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0	0	1,200	0	1,200	0	0
○수도권 AI 선도지구 발굴 용역	0	0	0	0	500	5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5,727	5,727	27,643	900	28,143	500	1.8
○ 사업출연금(350-02)	5,727	5,727	27,643	900	28,143	500	1..8

주: 2026년 3월말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동 사업 중 추경으로 증액된 “수도권 AI 선도지구 발굴 용역 내역사업”은 반도체 클러스터, 연구중심 대학 등 수도권의 AI 분야 인프라 역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선도지구’를 발굴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

을 추진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기존 내역사업인 “AI 특화지구 조성(AHAP, AI Hub of Asia-Pacific)” 사업은 AI 분야의 기업, 인재, 데이터를 집중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 허브 역할을 할 AI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6년 AI 특화지구 조성(AHAP) 사업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산출내역	비고
10,5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0,500백만원 - AI 특화 지구 조성(AHAP) 마스터플랜 수립 : 1식 × 500백만원 = 500 백만원 - AI 의료 서비스 개발 등 실증 패키지 지원 : 10식 x 1,000 백만원 = 10,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AI 특화지구 조성(AHAP)”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AHAP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내용은 ① 다양한 분야 AI개발·실증과 데이터 수집·활용에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규제 프

리존' 운영, ② GPU, 데이터등 정부 구축 자원의 최우선 활용 보장, ③ AI 개발자, 스타트업, 연구자 등을 위한 주거공간과 공용 오피스 공급, ④ AI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국내외 VC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⑤ AI 인재에 대한 무비자 제도 운영 등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AI 특화지구의 모델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입지 후보지를 발굴·선정하기 위하여 AI 특화지구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2026년 예산으로 5억원의 사업출연금을 이미 반영하였음.

○ 그런데, 기존 사업으로 조성하려던 AI 특화지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하는 AI 선도지구는 AI와 관련된 인프라, 기업, 인력, 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집적 이익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 AI 선도지구 발굴 용역안을 보면 수도권 AI 입지 발굴, 컴퓨팅 자원 우선 제공, 공동 R&D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규제개선 추진을 통한 규제 완화 등 앞서 살펴본 AHAP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됨을 알 수 있음.

< 수도권 AI 선도 지구 발굴 용역(안) >

□ **개요** ○ **(배경) 수도권 AI 인프라 역량**(반도체 클러스터, 연구중심 대학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강점을 극대화**하는 **'AI 선도지구' 발굴**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기간/예산)** 추경~'26.12월(8개월) / 5억원 □ **주요내용** ○ **(입지 선정)** 각 지역의 인프라(전력, 용수, 통신망 등)와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한 **수도권 AI 입지 최적화 분석** ○ **(글로벌 기업 유치)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R&D 펀드조성, 컴퓨팅 자원 우선 제공 등 **한국형 유치 패키지 설계** ○ **(산·학·연 협력) 주요 거점 대학**과 수도권 내 **AI 기업 간**의 **인턴십, 공동프로젝트** 등을 위한 **메가 캠퍼스 플랫폼** 기획 ○ **(제도 개선)** 수도권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도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처럼, 제도의 취지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정책연구용역을 각각 별도로 실시하면 재정의 중복 투입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제도 간 정합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상반된 용역 결과가 도출되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지구 및 선도지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취지의 유사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동 내역사업을 기존의 AI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포함하거나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추경 편성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필요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1]에 따르면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의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음.

○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에너지 수급·해운 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경제·산업·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주된 편성 방향임.

---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특히, 추경은 본예산에 비해 정부의 예산 편성 및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 사업은 신속한 추진과 집행을 통해 국민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수도권 AI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도지구 조성 여부를 결정하고 선도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해당하며, 실제 선도지구 조성·지원은 동 내역사업의 종료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적 판단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임.

○ 그러므로,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국내 경제나 민생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 비교할 때 긴급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이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집행 가능성, 긴급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내용 및 추진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5): 사업계획 보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세부 내역 중 ① 인건비 증액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3개 과기원의 창업원 신설 준비 절차가 필요하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세부 내역 중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과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모두 행사성 요소의 비중이 큰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나, 현재 구체적 계획이 다소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을 조속히 보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추진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역 중 ④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사업은 4대 과기원의 특성과 지역 수요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과 예산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과기원별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역 중 ⑤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과기원별 기술지주회사의 여건 차이에도 일률적인 방식과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과기원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펀드 결성·운용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2,970억원 7,7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42억 9,800만원(4.8%)이 증액된 3,11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추경안 증액 대상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각각 과학기술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인건비”는 4,800만원이 증액된 1,048억 4,100만원,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비는 14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1억 4,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1,163억 6,7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64억 9,000만원(14.2%) 증액된 1,32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추경안 증액 대상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각각 과학기술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인건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31억 700만원,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비는 16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9억 3,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1,262억 8,9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64억 9,000만원(13.1%) 증액된 1,42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추경안 증액 대상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각각 과학기술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인건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43억 7,400만원,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비는 16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2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1,206억 1,0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164억 9,000만원(13.7%) 증액된 1,371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추경안 증액 대상 내역사업인 “인건비” 및 “창업 및 사업화 협력”은 각각 과학기술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인건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59억 4,400만원,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비는 16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이상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등 4개 세부사업은 모두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각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으로 지원됨.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등 4개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2026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18,356	233,356	297,077	65,559	311,375	14,298	4.8
○ 기관운영비	116,251	116,251	120,756	24,400	120,804	48	0.04
- 인건비	100,623	100,623	104,793	19,200	104,841	48	0.05
○ 사업비	117,105	117,105	176,321	41,159	190,571	14,250	8.1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3,558	3,558	2,891	2,891	17,141	14,250	493
□ 세출예산비목							
○ 출연금	218,356	233,356	297,077	65,559	311,375	14,298	4.8
- 연구개발인건비(360-01)	100,623	100,623	104,793	19,200	104,841	48	0.05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12,507	112,507	160,840	40,159	175,090	14,250	8.9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R&D)	101,447	100,450	116,367	25,014	132,857	16,490	14.2
○ 기관운영비	46,730	45,733	49,183	9,588	49,423	240	0.5
- 인건비	40,386	39,389	42,867	7,932	43,107	240	0.6
○ 사업비	54,717	54,717	67,184	15,426	83,434	16,250	24.2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2,000	2,000	1,682	411	17,932	16,250	966.1
□ 세출예산비목							
○ 출연금	101,447	100,450	116,367	25,014	132,857	16,490	14.2
- 연구개발인건비(360-01)	40,386	39,389	42,867	7,932	43,107	240	0.6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51,467	51,467	62,409	14,234	78,659	16,250	24.2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0,160	97,660	126,289	27,147	142,779	16,490	13.1
○ 기관운영비	50,755	50,755	52,404	11,280	52,644	240	0.5
- 인건비	42,390	42,390	44,134	9,505	44,374	240	0.5

구 분	2025		2026		2026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사업비	46,905	46,905	73,885	15,867	90,135	16,250	22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1,000	1,000	2,000	429	18,250	16,250	813
□ 세출예산비목							
○ 출연금	90,160	97,660	126,289	27,147	142,779	16,490	13.1
- 연구개발인건비(360-01)	42,390	42,390	44,134	9,505	44,374	240	0.5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3,865	43,865	70,912	15,229	87,162	16,250	22.9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1,384	101,019	120,610	25,927	137,100	16,490	13.7
○ 기관운영비	44,102	43,737	45,545	12,638	45,785	240	0.5
- 인건비	34,187	33,822	35,704	9,522	35,944	240	0.7
○ 사업비	57,282	57,282	75,065	13,289	91,315	16,250	21.6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2,278	2,278	2,278	392	18,528	16,250	713.3
□ 세출예산비목							
○ 출연금	101,384	101,019	120,610	25,927	137,100	16,490	13.7
- 연구개발인건비(360-01)	34,187	33,822	35,704	9,522	35,944	240	0.7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57,282	57,282	68,965	12,422	85,215	16,250	21.6

주: 1) 2026년 3월 기준임.
2) 추경 대상 내역사업 및 비목만 작성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나) 검토의견

○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추경예산안은 크게 창업지원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①)’와 ‘창업 및 사업화 협력(②~⑤)’ 내역사업 사업비 증액으로 구성되며,

각 과기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외에 사업비로 ‘창업 및 사업화 협력’ 내역사업 아래 ② 창업리그 운영,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④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⑤ 창업펀드 조성 등 4개의 내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① 인건비 증액은 과기원별 창업원(현재 한국과학기술원만 운영중)을 신설·증원해 총 32명(한국과학기술원만 2명, 그 외 3개 과기원은 각 10명)의 전담인력을 고용하고, 1인당 연 4,800만원의 보수(추경안에는 6개월분만 편성)를 지급하려는 것임.

-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은 4대 과기원의 학부/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리그 행사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창업활동비, 우승 상금 등을 지원할 계획임.

-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과기원 창업리그 입상팀을 포함한 과기원 학생·교원 및 지역 내 기업 등에게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 컨설팅, 투자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임.

- ④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사업은 4대 과기원 내 개방형·수요기반형 공유 실험실을 구축하고 예비창업가 등에게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임.

- ⑤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4대 과기원별 100억원의 창업펀드를 조성(정부+과기원 매칭)하여 각 과기원별 기술지주회사의 펀드에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이를 포함한 신규 펀드를 결성하여 과기원 창업리그 입상팀을 포함한 과기원 특성화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 각 과학기술원별 ① “인건비” 증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총 2명 채용분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 각각 10명 채용분 2억 4,000만원씩 편성하였음.

○ “창업 및 사업화 협력” 사업비 증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대 과학기술원에 각각 신규 내내역사업 수행을 위한 ② 창업리그 운영 15억원,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억 5,000만원, ④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억원, ⑤ 창업펀드 조성 70억원(한국과학기술원만 50억원)을 편성하였음.

< 4대 과기원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구 분	인건비(①)	창업 및 사업화 협력(②~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직원 2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4,800만원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00백만원 창업펀드 조성 5,000백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00백만원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6,500백만원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G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창업리그 운영 1,500백만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50백만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6,500백만원 창업펀드 조성 7,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추경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우선, 세부 내역 중 ① 인건비 증액과 관련하여 각 과기원의 창업원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기존 창업원을 바탕으로 전담인력 2명을 추가 증원하고, 나머지 3개 과기원은 각 10명 규모의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창업원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총 32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과기원은 전담인력 채용 외에도 창업원 신설을 위해 정관 변경, 이사회 승인, 시설·공간 확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신규 인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각 과기원은 4월 추경예산 확정 이후 5월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창업원 신설이 필요한 3개 과기원은 그 과정에서 정관 변경 및 이사회 승인 절차와 함께, 4월~7월까지 시설 및 공간 확충과 전담인력 채용을 병행하여 7월부터 창업원을 개소·운영한다는 계획임.

< 4대 과기원별 추가경정예산안 인건비 세부 편성 내역 >

구 분	인건비(①)	사업 계획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직원 2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4,800만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5월 정관 변경 및 이사회 승인(직제개편) 5월~7월 전담 인력 공개 채용 4월~7월 창업 전용 실험실 공간 및 장비 구축 7월 창업원 개소 및 운영
울산과학기술원 (UN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 (GIST)	직원 10명x48백만원x6개월/12개월 =2억 4,0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 3.

- 한편, 동 사업은 4개 과기원에 대해 동일하게 6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은 기존 창업원을 전제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나, 나머지 3개 과기원은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창업원 신설을 전제로 조직 정비, 시설·공간 확충 등을 병행하여야 하는바, 준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또한, 3개 과기원은 이러한 개소 준비와 함께 단기간 내 전담 인력 공개채용을 추진할 계획인데, 채용 대상이 창업기획,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2] 적합한 인력 확보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질적인 창업원 업무 수행은 8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과기정통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설 창업원은 총괄(1), 창업교육(3), 창업 인큐베이팅(3), 스케일업(3)을 담당하는 인원 총 10명으로 운영될 예정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취지는 이해되나,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3개 과기원의 경우 창업원 신설을 위한 준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단발성 행사 개최가 아닌 지역 창업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다음으로,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 중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은 4개 과기원 통합 기준 총 60억원으로 산정되어 추경안에 각 과기원별 15억원씩 편성되어 있고,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1개 과기원 기준 12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과기원별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 내내역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 * 4개 과기원 기준 60억원 ㅇ 단계별 창업활동비 지원 : 5,050백만원 - (예선) 2,400백만원 = 학부 80팀×15백만원 + 대학원 60팀×20백만원 - (본선) 2,650백만원 · 창업활동비 : 1,400백만원 = 학부 20팀×30백만원 + 대학원 20팀×40백만원 · 상금 : 1,250백만원 = 학부 5팀×100백만원 + 대학원 5팀×150백만원 ㅇ 창업 멘토링·교육 프로그램 지원 : 550백만원 = 전문가 멘토링 40백만원 + IR 피칭 교육 280백만원 + 기술·시장검증 교육 등 230백만원 ㅇ 창업리그 운영비 : 400백만원 - 리그 홍보(영상·SNS), 장소 대관료, 무대·장비 설치비, 심사비 인건비 등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 1개 과기원 기준 12.5억원 ㅇ 해외진출 교육(글로벌 시장·규제 분석 등) : 200백만원 = 교육 10팀×15백만원 + 분야별 전략 워크숍 등 운영비 50백만원×1식 ㅇ 글로벌 PoC 및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 400백만원 = 10팀×40백만원 ㅇ 해외 인증·법률·회계 컨설팅 패키지 운영 : 150백만원 = 10팀×15백만원 ㅇ 글로벌 투자 IR전시회 등 개최 : 250백만원 = IR 컨설팅 10팀×8백만원 + IR 등 개최운영 170백만원 ㅇ 해외거점 연계 운영 : 250백만원 = 1식×25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은 4대 과기원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을 통해 창업팀을 발굴·선발하는 사업이며,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창업리그를 통해 선발된 창업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뒷받침하려는 사업임.

< 사업별 주요 내용 >

② 창업리그 운영 사업(60억원)

- **(지원대상)** 과기원 학부/대학원 재학·휴학·졸업 2년 내 학생
- **(운영방식)** 학부/대학원 리그를 구분해 과기원별 예선 진행 후, 과기원 통합 본선 진행

	예 선	본 선
학부	· (대상) 과기원별 **20팀(총 80팀)** · (지원) 팀당 **1.5천만원** 창업활동비 · (결과) 과기원별 대표 **5팀** 선발	· (대상) 과기원별 **5팀(총 20팀)** · (지원) 팀당 **3천만원** 창업활동비 · (결과) 최종 **5팀** 선발, 상금 **1억원**
대학원	· (대상) 과기원별 **15팀(총 60팀)** · (지원) 팀당 **2천만원** 창업활동비 · (결과) 과기원별 대표 **5팀** 선발	· (대상) 과기원별 **5팀(총 20팀)** · (지원) 팀당 **4천만원** 창업활동비 · (결과) 최종 **5팀** 선발, 상금 **1.5억원**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50억원)

- **(지원대상)** **과기원 창업리그 입상팀을 포함해** 과기원 학생·교원 (예비)창업팀 및 지역 내 이머징 테크 기반 딥사이언스 기업 등
- **(운영방식)** UC Berkeley·NYU 등 과기원별 기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현지 대학 창업공간 등 연계 활용
- **(지원내용)** 해외진출 교육(글로벌 기술 트렌드·시장 규제 분석 등) 및 현지 시장·고객 검증, 해외 인증·법률·회계 패키지 컨설팅, 글로벌 투자 IR·전시회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우선, 각 과기원은 ② 과기원 통합 창업리그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선발하고, ③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선발된 팀의 후속 해외진출 및 투지유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창업확대'라는 성과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업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기원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이들 두 사업은 모두 대회, 교육, 전시회 등 행사성 요소의 비중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간 연계와 각 과기원 간 역할분담, 성과관리 체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추경 예산 집행이 단순한 1회성 행사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한편,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도 행사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사개최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행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3],

-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낭비요소 없이 단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더욱이 추경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되는 행사성 사업은 촉박한 집행 일정과 행사사업의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안고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간 연계방안과 4대 과기원간 역할분담, 성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추진내용

3)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79

을 공개함으로써 동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음.

□ 4대 과기원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다음으로, 세부 내역 중 ④ 창업지원 자율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4개 과기원에 동일하게 65억원씩 총 26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4대 과기원별 창업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 세부 편성 내역 >

구 분	세부 편성 내역
한국과학기술원 (KAIST)	6,500백만원x1식 = 6,500백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6,500백만원x1식 = 6,500백만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6,500백만원x1식 = 6,500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GIST)	6,500백만원x1식 = 6,5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동 사업은 과기원 학생·교원 및 지역 내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공유 실험실을 조성하고, AI 1인 창업지원·Fast-Prototyper 센터 구축·기획형 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형 창업지원을 추진하려는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각 과기원이 이미 수행 중인 창업지원 기능과 시설·장비,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확대하는 성격이 큰 것으로 보임.

< ④ 창업지원 자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주요 내용 >

ㅇ **(지원대상)** 과기원 학생·교원 및 지역 내 (예비)창업가

ㅇ **(공유 실험실 : 120억원)** 지역 개방형·수요기반형 제품 개발·제작·기술검증 장비 구축 및 협업공간 조성 등

ㅇ **(프로그램형 창업지원 : 140억원)** 예비창업가 육성·제작 지원 등 창업 보육 강화

AI 1인 창업 지원	1인 예비창업가 대상 AI 에이전트 교육·커스텀 설계-BM 고도화-사업화(초기 자금 등)-창업 네트워킹 등 지원
Fast-Prototyper 센터 구축	창업기업-PCB/UI·UX 설계 업체-제조업체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기존 2-3년 → 6개월로 단축)
기획형 창업 지원	지역 수요 기반 및 우수 기술 중심 문제정의-팀빌딩-기술검증-시제품 제작-사업화 등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그러나, 4대 과기원은 보유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특성, 지역 수요 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내용 및 예산액을 각 과기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처럼 사업수행 현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4개 과기원에 동일한 사업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기존 사업·인프라와 중복되거나, 지역의 실제 수요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추경안이 제출된 현재까지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추경

편성 후 각 과기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지역별 수요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개 과기원의 기존 창업지원 기능과 보유 인프라,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과기원 충분히 소통하여, 기관별로 무엇을 추가·보완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률적인 창업펀드 조성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마지막으로, 세부 내역 중 ⑤ 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과기원별 1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정부매칭 규모는 한국과학기술원은 50억원, 나머지 3개 과기원은 각 70억원씩임.

< 4대 과기원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

구 분	⑤ 창업펀드 조성
한국과학기술원 (KAIST)	5,000백만원x1식 = 5,000백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7,000백만원x1식 = 7,000백만원
울산과학기술원 (UNIST)	7,000백만원x1식 = 7,000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GIST)	7,000백만원x1식 = 7,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동 사업은 각 과기원이 정부 출연금을 각 기술지주회사 펀드에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출자금을 포함한 신규 펀드를 결성·운용하여 과기원 특성화 분야, 지역 특화 산업 분야, 공공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까지 동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출자자 구성을 마친 뒤, 8월 중 펀드 결성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 ⑤ 창업펀드 조성 사업 주요 내용 >

ㅇ **(조성 규모)** 과기원별 100억원* * 정부매칭 규모 : KAIST 50억원, 그 외 3개 과기원 각 70억원 ㅇ **(운용기관)** 4대 과기원별 기술지주회사 ㅇ **(결성 방식)** 과기원은 해당 출연금을 각 기술지주회사 펀드에 출자 → 기술지주회사는 민간 출자금을 포함해 신규 펀드 결성·운용 ㅇ **(투자대상(안))** 과기원 창업리그 입상팀을 포함해 ①과기원 특성화 분야, ②지역 특화산업 분야, ③공공기술사업화 기업 등 대상 70% 이상 투자 ㅇ **(일정(안))** 4~5월 계획 수립 → 6~7월 출자자 구성 → 8월 펀드 결성 제반절차 추진(정관 등) → 10월~ 펀드 결성·운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각 과기원별 기술지주회사의 규모와 민간 출자금 확보 가능성, 운용역량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 없이 일률적으로

10월까지 신규 펀드 결성을 완료·운용할 계획으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과기원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4대 과기원의 기술지주회사 체계를 살펴보면, 4대 과기원 공동 기술사업화 회사인 미래과학기술지주[4]와 각 과기원이 별도로 출자·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존재하고, 이들 회사는 설립 시기와 운영기반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5].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기술지주회사의 체계와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펀드 결성·운용 계획 없이 각 과기원별로 일률적인 방식과 일정에 따라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 출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제 펀드 결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기술지주회사 기능과의 차별성도 분명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역량, 민간 출자금 확보 가능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기원별 펀드 결성·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동

4) 미래과학기술지주는 2014년 4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 UNIST, GIST, DGIST)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 과기특성화 대학의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공공기술사업화 전문 회사임(홈페이지: https://www.miraeholding.com/ 참조)
5) KAIST Holdings(2021), 유니스트기술지주(2017), DGIST 기술지주(2022), 지스트기술지주(2023) *각 지주회사 및 과기원 홈페이지 참조

사업이 형식적인 재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과기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인 기술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연구개발특구육성(R&D)(4632-401): 유사 사업 간 기능 재조정 및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기존 유사사업과의 기능 재조정 및 본예산 중심의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출연금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임.

<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2		2026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본예산	추경	결산	예산액 (A)	집행액			
□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6,104	116,104	116,104	167,343	153,985	176,043	8,700	5.2
○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	40,075	50,075	50,075	75,691	69,491	84,391	8,700	11.5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0,075	50,075	50,075	75,691	69,491	84,391	8,700	11.5

주: 2026년 집행액은 2월 말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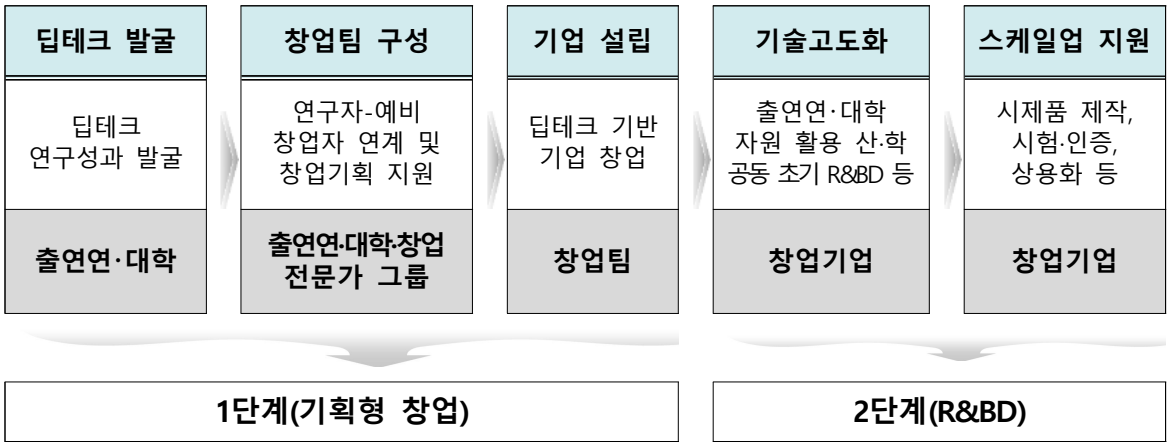
○ 동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1,673억 4,300만원이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87억원이 증액되어 총 1,76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추경을 통해 세부사업인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87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의 내역사업인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 사업은 광역특구 내 전략기술을 매칭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조직과 연계하여 공공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기업 성장, 글로벌 진출 등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임.

- 여기에 신규로 편성된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거점대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딥테크 연구성과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기획형 창업과,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초기 기술사업화(R&BD)를 지원하는 초기 스케일업을 주요 내용으로 함.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추진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 유사 사업 간 기능 재조정 및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추경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적·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기획형 딥테크 창업을 확대하고, 기술 발굴부터 사업화·성장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본예산에는 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 사업으로 총 756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75억 2,500만원),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33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582억원),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66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내역 및 예산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연구개발특구육성(R&D)			167,343
ㅇ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전략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75,691 **(추경포함 84,391)**
		특구형 기술창업 스튜디오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전략기술 사업화	
		유니콘 프로젝트	
		AI글로벌 빅테크 육성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추경)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ㅇ특구혁신성장 스케일업지원	이노폴리스 캠퍼스		37,975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지원	지역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규제특례 R&D	
ㅇ글로벌부스트업 프로젝트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11,550
	글로벌 클러스터 R&D		
ㅇ강소특구육성			30,400
ㅇ기획평가관리비			4,27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특히, 582억이 편성된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전략기술사업화(277억원), 유니콘 프로젝트(95억원), AI글로벌 빅테크 육성(210억원)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딥테크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유사·중복 성격의 사업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구육성사업 내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 사업 비교 >

구분	연구개발특구육성(R&D)				
	전략기술연구성과 사업화(R&BD)				
	딥테크지원 (추경)	전략기술사업화	유니콘프로젝트	AI글로벌빅테크	기술창업 스튜디오
사업 기간	계속 ('26년 신규)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지원 요건	출연연·지역거점대 및 지역혁신기관 등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및 공공연 기술 이전·사업화 기업	연구소기업 및 공공연 기술 이전·사업화 기업 * 단계별 Seed 및 Series-A(10~50억) 투자, 준하는 성과 창출시 지원	AI 분야 연구소기업 및 공공연 기술 이전·사업화 기업 * 후속 단계 지원시 50%이내 과제 선별(경쟁형)	출연연· 과기 특성화대, 지역혁신기관 등 창업지원 사업단
수혜자 (기관)	출연연 등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및 사업화 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소기업 등)	AI 분야외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소기업 등)	AI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연구소기업 등)	출연연 등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기획형 딥테크 창업 지원 및 초기 스케일업 (R&BD) 지원	공공연 기술 기반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실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중대형과제 지원	AI 기술 활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증· 제품화 지원	유망 창업기술 발굴 및 기술창업, 투자연계 등 지원
지원 규모	창업 준비 1억원(1년), 스케일업 5억원(1년)	연간 3억원 (최대 2년)	1단계: 연간 10억원(2년) 2·3단계: 연간 10억원(각 1년)	1단계: 연간 6.3억원(1년) 2·3단계: 연간 20억원(각 1년)	사업단별 연간 6억원(최대 3년)
'26년 예산	87억원(정부안)	277억원	95억원	210억원	33억원
핵심 특징 (차이)	창업전, 창업초기 지원 → 성공률 극대화	이전공공기술의 사업화지원	중대형과제 사업화지원	AI분야 특화지원	사업단을 통한 창업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신규 편성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간 기능 중복 및 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은 창업에서 초기 기업성장까지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지역안착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임.

○ 딥테크 창업은 기술성숙도 초기 단계에서 출발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5~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창업을 단기 재정수단인 추경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책수단 간 정합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 성과 달성 수준, 추가 재원 투입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 사업은 딥테크 우수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상용화의 마중물 역할(Lab-to-Market)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이후에도 본예산 및 차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임.

- 또한, 지역 특구별 딥테크 창업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딥테크 분야 기술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연내 사업비의 실집행 및 신속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	과제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과제수행
'26.4월말~5월말		'26.6월		'26.7월		'26.7~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딥테크 창업 지원사업은 연구개발(R&D)·시제품 제작·실증 및 인증·사업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속적 지원이 필수적인 전형적인 계속사업임.

- 이러한 딥테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단기간 내 실질적 성과 창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추경 사업의 경우 집행 성과 확보를 위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절차 간소화, 사전 준비 강화, 사업별 일정관리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연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해 보면, 추경으로 편성된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 사업은 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 사업 간 기능 재조정 및 통합적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본예산 중심의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 및 사업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관리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딥테크 창업 지원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핵심인 만큼, 향후에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통신진흥기금

1) AI통합바우처(2602-336):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지원 기준 설계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격을 갖춘 공급기업이 동 내역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 모집 시 면밀한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창업기업이 단년도에 수요기업의 전사적 AX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원기업 수 또한 과거 유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반영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AI통합바우처 사업은 국내 AI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해 수요기업의 AI 제품·서비스 사용이나 AI 제품·서비스의 개발·활용기반(고성능컴퓨팅자원·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을 통하여 사업출연금 및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897억 7,500만원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0억원이 증액된 1,09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AI통합바우처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2026 추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AI통합바우처	103,951	103,951	89,775	9,039	89,775	20,000	22.3
○ 고성능컴퓨팅지원	43,293	43,293	18,000	1,980	18,000	0	0
○ AX원스톱 바우처 지원	0	0	30,000	3,300	30,000	0	0
○ AI 바우처 지원	27,625	27,625	27,625	3,039	27,625	0	0
○중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4,673	4,673	4,800	720	4,800	0	0
○ 데이터 바우처	28,000	28,000	9,350	0	9,350	0	0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0	0	0	0	20,000	20,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103,951	103,951	89,775	9,039	89,775	20,000	22.3
○ 사업출연금(350-02)	75,951	75,951	80,425	9,039	20,000	20,000	24.9
○ 민간경상보조(320-01)	28,000	28,000	9,350	0	0	0	0

주: 2026년 3월말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3.

○ 동 사업 중 추경으로 증액된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내역사업은 기존 전통기업과 AI 분야 청년 창업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 솔루션을 구매·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 지원대상에 대한 면밀한 기준 설계 필요

○ 동 내역사업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하여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이 청년 창업기업에서 만든 AX 솔루션을 구매·활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함.

< 2026년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산출내역	비고
20,0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0,000백만원 - AI청년창업기업 AX솔루션 구매 : 20개 기업 × 1,000백만원 = 20,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음.

○ 바우처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나 실질적으로 공급자의 제품·서비스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급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수단이기도 함.

○ 동 내역사업 또한 AX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전통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AI청년창업기업으로 특정함으로써 AX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음.

○ 따라서,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공급기업과 그 기업이 판매하는 AX 솔루션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적정한지 바우처 대상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급기업 모집 시 AX 솔루션의 세부 설명자료 및 납품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최종 선정된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점검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동 내역사업과 사업 구조가 동일한 기존 AI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기준 공급기업 모집에 지원한 1,829개 기업 중 약 78%인 1,428개 기업이 최종적인 공급기업 POOL로 확정된 바 있어, 실질적으로 선별 과정이 충분히 엄격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26년 AI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 요건 >

□ **공급기업 자격요건**

○ 자체 개발한 AI솔루션을 보유한 국내기업 (법인에 한함)

○ AI솔루션의 아키텍처 및 상세 설명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AI솔루션에 대한 제3자 테스트결과서, AI SaaS 서비스 적용,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및 인증서 등 제출 기업 우대

- 공급기업 POOL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나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은 법인에 한하며, 과제 신청이 가능한 기업만 공급기업 POOL로 공개**
-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등 AI솔루션 보유 사업자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산업 분야는 대기업 등록 가능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동 내역사업은 공급기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6]으로 한정하는 만큼 기존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보다 공급기업을 더 엄밀하게 검증하여 선별할 필요성이 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의 특성상 연내 집행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공급기업 선별 과정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자격이 미흡한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기존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제당 최대 2억원을 지원

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하나 동 내역사업은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과제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공급기업 선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격을 갖춘 공급기업이 동 내역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 모집 시 면밀한 선별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바우처 지급 계획의 보완 필요

○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7]에 따르면,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중 수혜자가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은 신규 바우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임.

- 신규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간 유사·중복, 수혜자 특정성, 관리 용이성 등을 체크하는 바우처 체크리스트[8]를 제출하

---

7)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19.
17. 바우처 적용대상 사업
1. 적용대상
□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 중 수혜자가 서비스를 시장에서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사업
○ 바우처는 쿠폰 지급, 공급자 지원, 비용 환급 등의 여러 형태로 도입

8)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20.
□ 바우처 적용사업은 실제 대상기준, 물량 및 지원단가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전년대비 변동내역을 명확히 제시
○ 신규 바우처 사업은 <별첨2>의 '바우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 신규 또는 계속사업은 <별첨3>의 '바우처 적용 사업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대상기준, 물량 및 지원단가 등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바우처 체크리스트>

질의항목	답 변					답변근거 및 자료
	1	2	3	4	5	
① (사업자수)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은가?						
② (정보취득)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혜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가?						
③ (특정성) 수혜자의 범위 설정이 용이한가?						
④ (관리용이성) 바우처의 운영과 관리가 용이한가?						
⑤ (서비스만족도) 현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가 낮은가?						
⑥ (현금화유인) 수혜자가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바우처를 현금화할 유인이 작은가?						
총 점						
자체판단결과	(적용 / 미적용)					

자료: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22.

○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으로 인해 편성 시점에 바우처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후적으로 검토할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임.

○ 추경으로 편성되는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기간이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예산 수준에서 요구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되므로, 추경의 집행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지원단가를 고려한 사업 규모 조정 필요

○ 동 내역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과제당 바우처 지원 수준의 최대 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하고 총 2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종적으로 200억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음.

< 2026년 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예산 산출내역 >

예산	산출내역	비고
20,000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20,000백만원 - AI청년창업기업 AX솔루션 구매 : 20개 기업 × 1,000백만원 = 20,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별 지원단가의 경우 기존 AI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기준으로 하는 단순 AX솔루션 도입 비용 2억원에 수요기업의 전사적 AX 추가 개발 소요(AI 기능 추가 개발, 데이터 추가 가공, 클라우드 이용료 등) 8억원을 반영하여 10억원으로 산정됨.

○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AI 바우처 공급기업 1차 공모 결과 총 998개사 중 청년창업기업이 201개사인 점을 감안하여 그 10% 수준인 20개사를 지원목표로 설정함.

○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추경으로 편성된 단년도 사업으로 2026년 내 집행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큼을 고려할 때, 이미 개발된 AX솔루션의 도입을 넘어 개별적인 기업 수요에 맞춘 AI 기능 추가 개발, 데이터 추가 가공, 클라우드 이용 지원 등 전사적 AX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추경 사업의 긴급성과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임.

○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청년창업기업이 AX솔루션 공급기업으로서 단순한 솔루션 판매 외에 수요기업의 AX 요구에 대응하여 단년도에 전사적인 AX를 모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존 AI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공급기업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AX솔루션 도입 비용만을 지원할 뿐 기업의 개별적인 AX 수요에 대한 맞춤형 제품 제공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음.

○ 또한, 2025년 AI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기준 모

집된 공급기업 376개사 중 실제로 수요기업의 선택을 받아 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은 31개사로 그 비중이 약 6.8%에 불과한 점[9]을 고려할 때, 청년창업기업 201개사 중 10%인 20개사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동 내역사업을 설계한 것은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창업기업이 단년도에 수요기업의 전사적 AX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단가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원기업 수 또한 과거 유사 사업의 추진실적을 반영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9) 전체 기업 유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기업 수는 1,778개사로 그 중 지원을 실제로 받은 기업은 121개사(6.8%)였음.